

이낙연 대표, MB·차 사면 발언에 새해 정치권 '들썩'

뉴스초점 - 사면의 정치적

2021년 새해 벽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던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발언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이 대표가 '국민통합'이라는 승부수를 꺼내놓았다는 평가와 함께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논의는 여야 모두에게 커다란 변화를 안겨줄 수 있는 화두인 만큼 정치권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고, 하반기에는 9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11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있어 '사면 카드' 자체가 이들 빅

국민통합 승부수... 당내 곳곳 반발 이어지고 국민의힘도 '떨떠름'
민주 최고위원 간담회 뒤 "반성이 중요... 국민·당원 뜻 존중하겠다"

이벤트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지난 1일 이후 정치권 안팎의 뇌관이 터진 분위기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3일 최고위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한 뒤 '사과가 전제돼야 사면 건의를 하느냐'는 질문에 "(반성이) 중요하다고 (당 발표에) 돼 있다"

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사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며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국민통합에 대한 이 대표의 의지는 지난해 연말부터 곳곳에서 감지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광주주요와 인터뷰를 통해 "국민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 등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근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언급했고, 당시 분위기는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춥불 정신'을 기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과 국민의 뜻이 어긋난다는 당내 반발도 거세다.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카드는 국민의 동기가 우선돼야 할 문제인데 전혀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론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민주당의 위상이 하락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식의 사면 논의는 비난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의 반발 기류도 심상찮다. 당원계시판에선

"당내 분열만 가져올 것"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계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전직 대통령 사면은 언제든 한 번쯤은 논의해야 할 정치적 현안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로서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내심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옛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과 달리, 당 차원에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당장 재보선 정국을 앞두고 선불리 나섰다가는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현실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새해 벽두부터 100명 넘게 확진 '초비상'

광주 효정요양병원 62명 쏟아져
순천 등 전남 서부권 대규모 확산

광주·전남에서 새해 벽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광주에선 새해 첫 휴일에 코로나 19 역대 일일 신규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몰려 들어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전남에서도 순천 등 서부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2·7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17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연장·적용하기로 했지만, 현 상황에서 지역민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확산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에선 새해 들어 지난 1일 13명, 2일 26명에 이어 이날 오후 6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68명이나 발생해 누적 확진자수는 1204명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8월 26일 39명 발생 이후 일일 최대 규모다. 광주 광산구 효정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만 종사자 2명 등 55명으로, 이곳에선 전남 종사자 7명을 포함해 누적 6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요양병원은 지난해 7월부터 3차례 전수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나,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전수검사(입소자 293명, 종사자 152명)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다. 코로나19는 추가 검사에서 음성이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아 향후 2차 검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령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특성상 중증환자가 대거 발생할 경우 지역 내 중증환자 치료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 병원에 총 17개의 중증전담 병상이 있는데, 잔여병상은 3개 뿐이다.

시는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대책회의를 하고, 중증환자 분류 시스템 구축 및 요양시설 검사·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4일부터 고위험인 요양시설을 비롯한 양로시설, 중증 장애인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를 기존 2주 1회에서 1주 1회 실시한다. 또 요양시설 환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흘에 한 번 PCR 검사를 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검사를 매일 한다.

타지역 대비 코로나19 정정지역으로 잡히던 전남에서도 새해 들어 2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순천 13명, 해남 4명, 광양 3명, 진도 1명으로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589명이다. 순천시 확진자가 폭증할 조짐을 보이자 지난 3일, '식당 낱술 금지(오전 5시~오후 4시 식당 주류 판매 금지)'를 포함한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발표하고,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 정부는 대신 수도권에만 적용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학원과 스키장 운영은 인원 및 시간제한 등을 조건으로 다시 허용했다.

/박진표·김형호 기자 lucky@kwangju.co.kr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시 광산구 효정요양병원에서 3일 오후 119구급대원이 확진자를 외부 치료시설로 이송하고 있다. 보건 당국은 고위험시설 종사자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요양병원 종사자 9명, 환자 53명(3일 오후 6시 기준)의 확진자를 파악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이번 주 매서운 한파 ... 서해안 폭설 내린다

이번 주 광주·전남지역에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4일 낮부터 일시적으로 기온이 올라 5일 오전까지 평년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지만, 5일 낮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져 수요일인 6일 이후부터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기상청은 6일부터 찬 대륙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추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 기간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4일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하 1도, 최고기온은 5~8도가 분포를 보이겠으며, 5일은 하루 종일 0도 안팎의 기온이 예상된다. 특히 6일부터는 광주·전남지역도 아침 최저기온이 최대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는 등 매서운 추위가 예상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손흥민, 토트넘 100골 '금지탑' ▶18면
땅끝에 스민 한국 시문학의 아름다움 ▶22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
辛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정의 힘으로 함께 이겨냅시다

그 어느때 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없는 일상을 되찾길 바라며 신축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Since 1969 광주·전남 대표은행 광주은행